

원주 가톨릭병원 호스피스 병동 방문기

김민정(한국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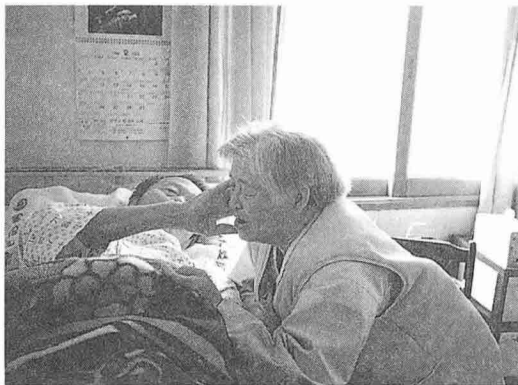
아름다운 도시 원주의 한적한 언덕에 위치한 가톨릭병원을 협회장님과 함께 방문하였다.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회 수녀원을 창설한 하이다 수녀님이 원장으로 있으면서 1993년 3월에 일반 병실을 100베드에서 65베드로 줄이고 호스피스 병동을 마련하였다.

현재 호스피스 병동은 19베드로서 카르멘 수녀님이 원목과 가정 방문 등 총 책임을 맡고 있고 간호사는 6명이 교대로 근무하며 26명(남 6명, 여 20명)의 자원봉사자가 환자의 목욕과 식사를 도우고 영적인 봉사를 하고 있다. 환자 임종 후 1년간 사별 가족을 보살핀다. 말기 암 환자뿐만 아니라 중풍, 만성 폐질환 등 2년 이상 입원한 환자도 있어 사회복지시설과 혼합된 성격을 띠고 있고, 독일이 고향인 원장수녀님의 성향을 읽을 수 있었다. 병실의 분위기는 너무나 평화롭고 환자 모두 더 이상 좋을 수 없다는 표정이 얼굴에 나타나 있었다.

밤에는 각자의 침실에 들어가지만 아침이 되면 넓은 거실로 나와 햇볕과 수녀님, 간호사의 따뜻한 눈길을 마음껏 받고 있었다. 주방 시설도 거실 안에 설치되어 간식 준비를 즉석에서 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의료보호 혜택만으로는 재정을 감당할 수 없어 어려움이 많다. 앞으로 영안실 및 편리한 목욕 시설이 꼭 필요하여 후원자를 기다리고 있다.

장기 환자를 퇴원시키라는 원주시청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하는 의문이 생겼다. 자식이 버린 부모를 돌보는 이런 좋은 장소는 우리 사회에 산소를 공급하는 가로수와 같이 필수적인 곳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곳을 응원엔 못할망정 실망을 시키다니.

이제 원주 가톨릭 호스피스가 활동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으므로 성숙한 Team이 협동하여 좀 더 많은 말기암 환자를 돌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환자의 80회 생일을 축하하면서 ▶

◀ 이혼하여 헤어져 살았던 두 분이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나 화해를 하는 장면

